

일본 민간조직의 지역노인돌봄 프로그램

Community-Based Care Programs for the Elderly among NPOs in Japan

윤순덕* · 박공주** · 채혜선***

Soon Duck Yoon · Gong Ju Park · Hye Sun Cha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community-based care programs for the elderly among NPOs, focused on the Regional Council on the Social Welfare and Elderly Club, in Japan and to examine the way these programs help the community elderly to live independently in their own home in the community. First, the community welfare policy for the aged and 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in Japan are reviewed. Second, using the informations about the elderly support programs carried out by the Regional Council on the Social Welfare and Elderly Club, various kinds and processes of specific programs developed to meet the local characteristics are introduced. Applicability of these programs to rural Korea is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노인돌봄(Elderly Care),
지역노인돌봄(Community-Based Elderly Care),
노인지원프로그램(Elderly Support Program),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업연구사, e-mail: ysd@rda.go.kr

**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농업연구관, e-mail: parkgj@rda.go.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연구사, e-mail: seon70@rda.go.kr

1.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으로써 노인관련 복지사업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졌다.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사회가 복지의 주체가 될 때 다양한 민간자원의 참여가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사회 내의 새로운 복지자원의 효과적 발굴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정경희 등, 2008). 그러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내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노인복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높지만, 장기적이고 자생적인 대응전략 수립은 미흡하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노인돌봄 서비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이하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전달이나 운영체계의 본질적 개선보다는 농촌의 부족한 시설인프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발굴이 미흡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유일하게 서비스의 수행자나 제공자의 자격조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노케어사업은 지역의 노인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의 말벗과 가사등을 도와줌으로써 농촌의 부족한 노인부양인력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유희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참여하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전혜정, 2007; 김옥희, 2008). 그러나 노노케어사업이 농촌에서 갖는 문제점을 분석한 윤순덕·채혜선(2008)의 연구는 서비스수혜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제한되어 있고, 사업지침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농촌지역 노인돌봄의 지속성이나 긴급성, 일상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노인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문제를 고려한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돌봄 프로그램은 극히 미미한 현실이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농촌형의 노인돌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해도,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선진국의 노인돌봄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단편적이며 특히 공적부양체계가 취약한 농촌의 노인돌봄 프로그램보다는 도시나 전국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집중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다. 비교적 미국의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한 연구들(한경혜, 2002; 박덕병, 2003)이 있는데, 광범위한 미국 농촌지역에서 역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농촌지도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촌에서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노인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적 농촌현실과 비교적 유사하고 세계 최장수국인 일본에서 이러한 농촌의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돌봄 프로그램을 찾아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 노인돌봄의 지속성, 일상성, 긴급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공·사적 돌봄인력이 취약한 농촌의 경우 지역의 돌봄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들이 활동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한국 농촌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2. 일본의 지역노인돌봄 정책

일본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에 의해 노인을 돌보자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의한 노인돌봄은 1990년부터 추진된 '노인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의 재가복지대책과 노인의 사

회활동촉진대책, 그리고 2000년부터 실시된 ‘노인개호보험제도’의 영향으로 보다 활성화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본 노인 대부분 또한 신체가 부자유스럽게 되어도 사는데 익숙하고 정들었던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노인의 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가복지대책을 긴급 정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정촌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복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를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1986년부터 실시된 지역 노인복지시스템 개발 육성사업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재택노인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공급시스템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가와 협력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 자신의 자조체제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상호부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복지마을을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길렀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 능력을 발휘하여 생애를 건강하게 사는 보람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활동촉진대책을 전개하였다. ‘노인의 사는 보람과 건강 만들기 추진사업’은 중앙에 “장수사회개발센터”, 도도부현에 “밝은 장수사회 만들기 추진기구”를 정비하고 매년 모델 시정촌 152곳씩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인클럽 및 시정촌 노인클럽 연합회를 조성하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등 ‘사는 보람과 건강 만들기 사업’을 도도부현 및 시정촌 노인클럽연합회에 일부 위탁하여 추진하였다.

시정촌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들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민간조직인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와 시정촌 노인클럽에 위탁하여 주로 추진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클럽은 일본 전역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의 활동은 그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방법

일본 지역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클럽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돌봄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총 18일간 인터넷 네이버의 인조이재팬 <http://enjoyjapan.naver.com> 검색엔진에서 일본웹검색 야후재팬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클럽', '농촌노인', '노인개호', '지역노인', '우애 방문활동' 등이었다. 연구자의 직접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아니고 일본의 웹 사이트에 소개된 2차 자료이기 때문에 이면의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수집된 지역과 기관, 자료출처 사이트는 <표 1>과 같다. 무작위로 수집된 사례들 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 6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협의회나 노인클럽 내에서는 지역노인 돌봄사업이 비교적 유사하였는데, 이 중에서 해당지역의 불리한 조건을 얼마나 개선한 사례인지, 사례에 대한 내용이 풍부한가에 주안점을 두고 각각 3사례를 선별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또는 관계되어 운영하고 있는 3사례, 노인클럽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사례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표 1〉 조사대상기관과 자료검색 사이트

유형	조사지역 및 조직	자료출처 사이트
사회복지 협의회 주도형 (3사례)	나가노현 사카에무라 사회복지협의회	www.nouminren.ne.jp
	쿠마코토현 미나마타시 사회복지협의회	www.minamata-shakyo.jp www11.ocn.ne.jp
	효고현 고베시 니시구 사회복지협의회	www11.ocn.ne.jp/~nishi www.with-kobe.or.jp
노인클럽 주도형 (3사례)	가나가와현 노인클럽	www.yumekurabu.or.jp www.pref.kanagawa.jp
	가가와현 노인클럽	www.bochibochi-kagawa.com
	효고현 고베시 노인클럽	www.city.kobe.jp

3.2. 분석내용

일본에서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민간조직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배경에서 그 지역만의 지역노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이들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지역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본의 지역사회에 의한 지역노인돌봄 정책과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하여 분포하고 있는 지역 민간조직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클럽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이 가능한 한 지금까지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지역노인을 위한 돌봄사업 발굴과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4. 연구결과

4.1. 지역노인돌봄 프로그램 전달체계

4.1.1. 사회복지협의회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195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비영리의 자주적인 민간조직이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과제를 해결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조직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문제의 해결은 공적 시책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단체 등의 자주적, 조직적인 복지활동 추진에 의해서 가능하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러한 역할에 맞는 민간조직이고 이들의 활동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에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도도부현에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시구정촌에는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결성되어 있고 그 결성률은 거의 100%로 되어 있다. 주민과 가장 근접한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 민생위원¹⁾ 및 아동위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관계자, 보건 및 의료, 교육 관계기관의 참가와 협력 하에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각각 지역사회에 내포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다양하고 관할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의 범주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민생위원법에 근거해,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는 점이 지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무보수로 위촉되는 공적인 일이다. 일정한 지구를 담당해, 한층 더 지역마다 지구 민생위원, 아동위원 협의회를 조직 해 활동하고 있다. 생활상의 문제, 가족문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복지 분야의 상담에 따라 조사나 조언, 공적인 기관에의 중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협회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적극적인 지원과 국고보조를 하고 있다. 각종 복지서비스와 상담활동, 자원봉사와 시민활동의 지원, 공동모금운동에의 협력과 같은 전국적인 활동에서부터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활동까지 여러 측면에서 지역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노인들의 생활스타일이나 복지에 관한 욕구 또한 다양하다. 고령의 허약하고 외출이 적은 노인, 장애를 가져 집에 틀어박혀 있는 노인, 그리고 독거노인 등 생활에 외로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노인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일본에서도 이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정부차원에서 제공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생활의 외로움이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욕구를 해결하고자 일본의 사회복지협회는 1994년부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모임을 조직하였고, 서로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장(場)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현재 전국각지에까지 확대되어 모임수가 3,359개소에 달한다. 자원봉사자 인구도 ‘노-노볼런티어’를 포함하여 매년 증가하여 1998년 현재 530만 명에 이른다. 활동의 장은 건강한 노인의 자택을 개방하거나 시민 또는 구민 회관을 이용하기도 하여 함께 식사하기, 운동하기, 이야기하기 뿐만 아니라 복지상담, 치매예방체조, 음악감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4.1.2. 노인클럽

일본의 노인클럽은 우리나라의 노인회와 같은 것으로 1950년경, 사회와 경제가 혼란하고 가족제도가 급변하던 상황에서 노인들 스스로가 모여 서로의 역할을 찾기 위해, 대체로 60세 이상의 회원이 동일한 소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주조직이다. 노인클럽은 일본의 어느 마을에나 다 있고, 2000년 현재 클럽의 수는 전국적으로 13만 4,000개가 넘으며

885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 일본 전체 노인의 약 40%는 노인 클럽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노인클럽은 노인들의 생활문제와 밀착된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크게 개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운 클럽활동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활동을 행하고 있다. 노인클럽 개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주된 활동으로는 그룹별 모임을 통한 게이트볼·미니골프·수영 등의 건강유지·시니어스포츠활동, 낚시·스포츠댄스·노래 부르기 등의 취미·문화·여가, 그리고 학습활동 및 리더연수 등이 있다.

특히 노-노돌봄과 관련하여 건강한 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회를 구성하여 몸이 불편한 노인의 외출지원, 간호예방 지원, 몸돌보기, 출장방문서비스 등 노인 보살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회활동으로 우애방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역 문화의 전승활동 및 세대간 교류, 작업·생산, 환경미화·자원재활용, 조사 등을 통한 정책에서의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2. 지역노인돌봄 프로그램 사례

4.2.1. 나가노현 시모미노치군 사카에무라사회복지협의회

4.2.1.1. 지역 및 환경적 특성

일본 제일의 적설기록(785cm)이 있는 나가노현 시모미노치군 사카에무라(榮村)는 270km²(도쿄도의 8분의 1)라고 하는 광대한 산간지에 31개 마을이 있는 곳이다. 연간 140일은 눈에 파묻히는 폭설지대에서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제설이 매일 행해지는 마을 주변의 간선도로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집까지는 걸어서 왕복해가며 생활해야 한다. 어떤 마을은 동사무소로부터 45km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마

을은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되고 물건의 택배화가 진행되면서, 소방차, 구급차뿐만 아니라 개호, 택배우편, 프로판가스, 등유차 등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져 생활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다.

4.2.1.2. 슬리퍼차림의 주민도우미제도 도입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2000년 개호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카에 무라라면 어디든지, 24시간 언제라도 도우미가 달려가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개호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마을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 결과, 옛날부터 사카에무라 아키야마고라는 곳에서 이웃이 노인을 도와 생활해 온 전통에 착안하여, 주민이 도우미로 파견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동사무소에 직업 도우미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눈 덮인 험한 산길을 걸어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집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나가노현 사카에무라는 지역 내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연평균 2~3m 정도 적설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이나 부부단독세대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주민도우미(케타바끼헬퍼)’를 파견하는 사업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밤중 어느 때라도 슬리퍼를 신고 찾아갈 수 있는 ‘주민도우미’에 의해서 24시간 안부 확인과 돌봄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민의 힘으로 안심할 수 있는 노인보호 네트워크를 만들어 불리한 지역여건을 극복하고 노인이 안심하고 이곳 사카에무라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조성에 힘썼다.

그러나 주민도우미라고 하더라도, 개호보험을 사용하는 이상, 아마추어의 자원봉사여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도우미로서의 자격을 주기 위하여 마을은 개호제도 도입 전년도인 1999년도부터 도우미 양성 강습회를

열었다. 그 결과, 160명이 자격을 따고, 이 중 118명이 사회복지협회의 도우미로 등록하여 마을의 노인개호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머지 40명 남짓은 자신의 집에 노인이 있으므로, 습득한 개호기술을 가정에서 살렸다. 118명의 도우미는 사회복지협회의 지침에 근거하여 개호에 임하지만, 사카에무라는 어느 마을이든지 2~3명의 도우미가 있으므로 도우미가 나가는 지역은 '슬리퍼차림으로 갈 수 있는 범위'로 하였다.

이때 '아는 사람에게 개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는 도시적인 저항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의 서로 돕기가 아니면 개호보험료가 비싸지고 그러면 마을의 개호보험 재정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의 할아버님, 할머니님으로부터 존경 받는 도우미가 될 것이다"는 표어를 만들어, "슬리퍼차림의 주민도우미제도"를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도우미수당은 1시간에 900엔, 저녁식사 후부터 오후 10시까지지는 25%, 그리고 심야에는 50% 할증되었다. 이 정도면 도우미는 한 달에 10만 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후생노동성과 나가노현이 함께 산정한 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1,967엔으로 전국 평균(2,911엔)의 3분의 2라는 저액 보험료로 인해 3년이 지났을 때는 1,800만 엔의 잉여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리하여 2003년도부터는 보험료를 1,950엔으로 인하할 수 있었다. 보험료를 인소한 보험자(시읍면) 수는 전국에서 6.7%밖에 없고 대부분은 인상하여 보험료의 전국 평균은 3,293엔이고 13.1% 증가하였다. 보험료가 가장 고액인 홋카이도 츠루이무라는 5,942엔, 최저는 야마나시현 아키야마무라의 1,783엔, 사카에무라는 전국에서 0.7%밖에 없는 1,000엔 대의 낮은 보험료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4.2.2 쿠마모토현 미나마타시사회복지협의회

4.2.2.1. 지역 및 환경적 특성

미나마타시는 쿠마모토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전체 면적의 75%가 산림이어서 평지는 적고 리아스식 해안이 약 30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지역이다. 해안과 산골짜기에는 온천도 있어 온난한 기후를 갖고 있다. 메이지 41년 화학비료공장이 건설된 이래, 농어촌 취락으로부터 공업도시로 발전해 왔다. 이어 1956년에는 쿠기노무라와 합병해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어 켄난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공식 확인된 미나마타병이 세계에 없는 공해병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자, 기간사업의 업계 불황, 종업원의 배치전환 등으로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과소화, 소자녀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6년 4월 1일 현재 미나마타시의 인구는 29,457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98명으로 29.2%의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4.2.2.2. 만남네트워크사업 추진

미나마타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90년대 초 미나마타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내에 거주하는 장애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의 원인이 많게는 사고가 아니고 뇌혈관장애 등의 질병이며,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치매노인도 250명을 넘고 있어, 지역의 민생위원 활동만으로는 민생위원의 부담도 커져버리는 상황에 있었다. 고령화, 소자녀화, 핵가족화, 과소화로 허약 노인, 치매증·와병 노인의 증가 및 독거·노부부세대가 증가하면서, 가족부양과 지역사회의 기능마저 저하되는 문제까지 표출되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수발피로에 의한 학대, 고독사 등의 비극이 일어나면서, “주민 주체에 의한 지역의 복지력 향상”, 즉, “복지 커뮤니티의 형성”이 필요하였다.

이때 미나마타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93년도부터 후생성 보조사업인

“만남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는 것을 계기로, “만남의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에 잠재하는 사회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복지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지역의 복지와 및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주도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누구나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을 목적으로, 구장, 민생위원, 노인회, 복지시설, 시의회 후생위원회, 기업, 의사, 자원봉사 연락협의회 등 다양한 회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26개 각각의 행정구역 주민이 “만남 활동원”으로서 서로 지탱해주는 시스템이 되었다.

만남 네트워크의 구축은 먼저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구 단위로 구장, 행정협력원, 민생위원, 노인회, 부인회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주요 인물들의 인식 공유, 주민들에게 활동원으로서 협력 의뢰를 목적으로 “만남 네트워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구장이나 민생위원 등의 지역 활동자들의 이해를 얻은 후에는 “만남 간담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를 결정해, 주민에게 알리었다.

만남 간담회는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과 만남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 주민이 개발한 비디오 시청 등으로 이루어졌다. 모델지역으로 ‘만남 네트워크’가 먼저 전개되고 있는 지역을 소재로 하여 비디오를 제작하여 시각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참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보다는 지역 활동가가 주민들에게 만남활동원으로 활동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의 사회 진행은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아니고,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행해졌다. 그리고 전원이 의견을 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자 간담회는 5~6명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간담회 진행에 대해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매뉴얼화 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만남 활동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만남 활동원 발족회를 개최하였다. 발족회에서는 만남 활동원의 등록 및 증명서 발행, 방문 대

상자 선정, 팀 편성 리더 선출, 활동연락회 일정 결정, 만남 활동의 합의 사항 확인, 기념촬영 등을 하였다. 만남 활동원의 희망자수는 지역간 격차가 있어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방문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민생위원에 의한 정보 제공이나 방문조사 등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방법을 취하며 사회복지협의회의 개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나마타시 사회복지협의회의는 소지역 네트워크의 선진지역 시찰을 거듭해 미나마타시의 지역성과 연결된 활동 방식을 만들었다. 활동은 조단위(구가 세분화된 단위)로 방문 대상자의 안부 확인과 '만남'을 목적으로 행해지며, 대상자는 연령이나 가족구성 등의 제한은 일절 마련하지 않고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으로 하였다. 방문하여 실시하는 활동내용은 건강점검, 욕구 발굴, 불조심·교통안전·방문판매 주의 등을 요청하고 방문결과를 '만남 노트'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방문 첫 회에 한정해 "만남 카드"(긴급 연락처 노트)를 배부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계속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얻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가정의 방문이유는 가족과 동거하고는 있지만 부양자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었다.

만남 활동원들은 1주일에 1회 방문한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모임인 "활동 연락회"라는 모임을 월 1회 갖는다. 이 모임에서는 활동보고 및 정보교환, 사례 검토, 향후의 활동계획 등을 이야기한다. 만남 활동원의 제휴를 도모하고 나아가 복지커뮤니티 형성으로의 연결을 목적으로 한다. 만남 활동원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직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보교환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소방대원에 의한 생명위급구조법 강좌나, 개호복지사에 의한 치매성 노인의 이해에 관한 강좌 등을 자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만남 활동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노력도 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이 만남 활동원으로서

‘지금부터 복지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실제로 휠체어조차 탔던 경험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 “복지 탐험대”라 칭하고 휠체어 체험이나 복지시설의 견학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활동 연합회에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참가하는 경우는 첫 회뿐이었다.

만남 활동원은 소지역(평균 35세대)을 단위로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등록하여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만남 활동원의 연령이나 임기의 제한, 활동비 등의 수당은 일절 없다. 활동기간 동안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 보험의 가입도 필요하지만, 미나마타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소개와 사무 수속만을 실시하고 강요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주체조직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어려움에 대비하여 자주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재원은 조비나 재활동품 수거활동의 수익금으로 지출하는 조직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방문 대상자는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의뢰에 의한 방문이 아니고 만남 활동원이 방문 대상자를 독자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에 따라 방문 대상자 범위의 격차가 생길 수 있으나, 노령화 정도나 지역성이 있으므로 좋음과 좋지 않음의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방문지에 따라서는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사양’인지 ‘거부’인지를 활동 연합회에서 협의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방문은 4~5명의 팀을 편성해 1팀 2명 이상으로 방문을 실시한다. 2명 이상으로 방문하는 이유는 긴급사태에의 대응, 치매성 노인의 대응, 복수 방문의 즐거움 등을 들 수 있다.

방문은 담당 가정을 한정하지 않고 매주 교대로 1팀씩, 방문 대상자를 모두 순회한다. 즉, 만남 활동원은 한 명에 대해, 월 1회의 방문을, 1시간 반 정도 실시하므로, 무리 없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 방문결과의 기록은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미리 양식이 설정된 파일식의 ‘만남 노트’에 하여 다음 팀에 건네준다. 이런 형태로 인해 만남 활동원끼리의 전달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며 공통의 이해도 가능해진다.

4.2.3. 효고현 코베 니시구사회복지협의회

4.2.3.1. 지역 및 환경적 특성

고베는 일본 혼슈 서부에 있는 효고현의 현청 소재지이자 한신공업 지대의 중심지로서, 방직·조선·전기기기·차량·제철·제강·고무·제당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지만, 최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비교적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쾌적한 도시이다. 고베시의 면적은 549.93km²이며, 인구는 약 152만 명으로 일본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신칸센으로 도쿄까지 약 3시간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2006년 2월에는 고베공항이 개항해서 일본의 각 도시와도 항공로로 연결되어 있다. 1995년 1월 17일 긴키지방을 강타한 마그네튜드 7.2의 대지진으로 고베에서만 사망자 4,484명, 부상자 1만 4,679명이 나왔고, 완전 파괴된 가옥이 6만 7,421동, 반 정도 파괴된 가옥이 5만 5,145동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소개되는 고베시 니시구는 9개 구 중 한 구로, 인구는 2006년 10월 1일 현재 246,201명이다.

4.2.3.2. 지역에서의 노인지킴이(見守) 활동

코베시 니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1995년 고베대지진을 계기로 하여, 응급가설주택에서의 노인 고독사 때문에 우애방문활동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니시구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다. 1997년부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신노인이 정든 지역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무보수로 위촉되는 민생위원, 아동위원이나 우애방문 자원봉사의 협력에 의해, 안부 확인이나 복지 상담, 대화상대로서 활동하는 “노인지킴이활동”을 전개한 후, 고베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1년에는 재택간호지원센터에 노인을 지켜보는 추진원을 배치하고, 지역주민 주체에 의한 지킴이활동을 개호보험 등 공적인 복지시책과

연결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 의해 결성된 자원봉사활동으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이에 준하는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이나 대화와 상담 상대가 되는 “우애방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애방문이란, 기본적으로 친구와 같이 이웃을 걱정하는 방문이라는 의미이다. 혼자 사는 노인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킴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우애정신을 키우는 봉사활동이다. 또한 지역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한달에 1~2회 정도 지역의 독거노인을 부르고, 두문불출해 바깥출입이 없는 노인 등 노인들 끼리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식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참가하는 노인에게는 참가비를 징수한다. 니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우애방문그룹, 급식회 그룹의 운영비 조성이나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 3월 31일 기준, 니시구 지역의 노인지킴이 활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수는 3,540명, 우애방문 그룹 수는 54그룹, 급식회 그룹 수는 31그룹, 민생 위원·아동 위원 수는 340명, 지킴이 활동 추진원 수는 8명이었다.

4.2.4. 카나가와현 노인클럽

4.2.4.1. 지역 및 환경적 특성

카나가와현은 일본 열도의 거의 중앙인 광동평야의 남서부에 자리잡고 있어 수도권의 일각에 위치하고 있다. 카나가와현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 서부는 산지, 중앙은 평야와 대지, 동부는 구릉과 연안으로 나눌 수 있어, 산, 강, 바다 등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마다 각각 특색 있는 역사와 풍토를 보유하고 있다. 도시화, 공업화가 활발히 진행된 동부, 풍성한 녹음의 산들로 둘러싸인 서부, 카나가와의 근원이 되는 강인 사가미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 아름다운 해안선이 이어져 있는 쇼난과 미

우라반도 등 카나가와현은 산업, 문화는 물론 풍부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의 혜택을 받은 지역이다. 카나가와현의 총 인구는 2006년 9월 1일 기준, 총 8,835천 명으로 남자는 4,462,951명, 여자는 4,372,910명이며, 총 3,648천 세대가 살고 있어 한 세대당 평균인원은 2.42명이다.

4.2.4.2. 우애활동(友愛活動)

우애활동은 노인클럽의 전국 3대 운동인 건강, 우애, 봉사의 하나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되어 오고 있다. 1972년에 처음으로 카나가와현 노인클럽 안에 여성·사회활동부 우애방문팀이 만들어졌고, 팀 내에서도 몇 개의 조를 나누어, 누워 지내는 노인 또는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및 정서적 지원 등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 노인클럽 연합회의 제창에 의해 1998년 10월 9일부터, 카나가와현 전체 노인클럽을 대상으로 1노인클럽, 1우애팀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노인클럽의 우애팀원 한 사람이 누워있는 분들에게 안부를 확인하고, 매일 2회 정도 방문하여, 대화상대가 되어주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는 결국 노인 상호간의 일상생활 돕기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애활동을 하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워 지내거나 혼자 생활하는 대상자 노인들의 고독감 해소를 위하여 수행한다. 둘째, 우애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스스로의 사는 보람 만들기를 위하여 추진한다. 셋째, 노인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복지를 지지해간다. 현재 카나가와현에 580개의 우애방문팀이 있으며, 약 4,000명의 팀원들이 거의 같은 수만명의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나가와현 노인클럽연합회에는 이러한 우애방문활동 이외에 노인들의 '만남모임'도 만들어 이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클럽의 우애방문활동과 만남모임의 활동은 현 지역의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4.2.5. 카가와현 노인클럽

4.2.5.1. 지역 및 환경적 특성

카가와현은 일본에서 처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세토나이카이 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코쿠의 토호쿠부에 있다. 지형은 반달형으로, 남부에는 사누키 산맥이 늘어서 있고, 북부에는 사누키 평야가 펼쳐져 있다. 하천은 대개 사누키 산맥에서 흘러 나와 북쪽으로 흐르고 세토나이카이로 흘러 들어간다. 면적은 1,876km²로, 일본에서 가장 작으며 대략 평지와 산지가 반반을 이룬다. 북쪽은 세토나이카이를 끼고, 세토대교에서 오카야마현과 연결되며, 동쪽과 남쪽은 토쿠시마현에, 서쪽은 에히메현에 접하고 있다. 해안선의 길이는 약 699km이고, 해변에는 다수의 섬이 점재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온난한 기후를 가졌다.

4.2.5.2. 우애방문활동과 수다 떠는 모임

노인클럽의 우애활동이란 전국노인클럽연합회의 건강, 우애, 봉사 3대 운동으로 오랜 기간 추진되어왔다. 카가와현 노인클럽연합회는 1998년 9월 우애활동을 제창하였다. 노인클럽의 우애활동원은 안부를 확인하고 매월 2회 정도 방문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다. 노인들끼리의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나 병약한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들의 가족을 지원하고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도록 방문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우애활동은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활동 추진원 스스로에게는 활력있는 생활을 유지하게 하며,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노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가와현 노인클럽은 지금까지 회원들의 우애활동을 「웃는 얼굴 보고 싶고 안녕하세요」라는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활동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자에 소개된 오지쵸 노인클럽은 카가와현 노인클럽들 중에

서 가장 먼저인 1994년 여성부를 결성하였는데, 이들 여성부 회원들은 다섯 달에 한 번 정도 삼치로 초밥을 만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인절미를 만들고, 여기에 웃는 얼굴까지 더해 현지 노인가정을 직접 찾아 다닌다. 또한 노인들이 계절에 따라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런 가하면, 오노하라초 노인클럽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체적으로 ‘수다 떠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을 만들어 ‘수다 떠는 모임’에 나오라고 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하여 참석하였다고 한다. 클럽에서는 매일 한 번씩 게임을 즐기고, 두뇌를 맑게 하는 체조를 하며, 보건원으로부터 넘어짐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듣기도 한다. 젊은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열심히 수다 떠는 모임에 나가려고 한다.

4.2.6. 호고현 코베시노인클럽

코베시 노인클럽연합회는 노-노볼런티어의 일환으로, 노인클럽회원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발을 제공하는 노인 상호지원활동과 코베시 공공임대주택에 새로 이사 온 노인들을 방문하는 실버프렌드(Silver Friend) 방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상호지원활동은 평소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가도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다른 사람의 수발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코베노인클럽연합회 회원이 노인 상호지원활동의 추진원으로 파견하여 수발을 하는 활동이다. 활동원은 노인클럽회원이면서 재택에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간단한 식사보조, 신변처리 도움, 청소, 장보기 등의 서비스를, 1회에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월 10회 한도 내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후 5시 이후에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실버프랜드의 방문 활동은 코베시 주택단지 등에 새로 입주하거나 이사온 노인이 새로운 지역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실버프랜드로서 등록되어 있는 노인클럽회원이 친구로 노인가정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 또는 노부부만 사는 세대이며, 이야기 상대, 지역 소개, 노인클럽의 활동 안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역시 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5. 맺는 말

일찍이 일본에서는 지역사회에 의한 지역노인 돌봄활동이 확대추세에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노인돌봄의 공사적 자원과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촌지역 노인복지의 방향과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민간조직에 의한 지역노인돌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사례는 자녀에 의한 일상적인 부양이 어렵고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적 서비스의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하여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민간조직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돌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한국 농촌에의 적용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각종 프로그램들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노인돌봄사업의 대다수는 국가차원의 노인개호보험제도나 복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나 노인클럽과 같은 민간조직에 위탁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민간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력자 역할만 할 뿐 노인돌봄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활동은 주민들에게 맡김으로써 민간조직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지역노인 돌봄프로그램 운영은 전국적인 활동에서부터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활동까지 여러 측면에서 지역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나가노현 사카에무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슬리퍼 차림의 주민도우미 제도’, 미나마타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만남 네트워크 사업’ 등과 같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실시되나 지역사회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였다.

가까이 사는 이웃에 의한 노인돌봄제도를 정착시킨 나가노현 사카에무라 ‘주민도우미’ 제도는 노인돌봄자원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농촌은 집성촌이 많고 집성촌이 아닌 마을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보다 오랜 유대관계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마을의 이웃주민은 전문가정봉사원 이상의 안부확인과 우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의 접근성 개선하기 위해 농촌마을 내 이웃주민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나마타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만남네트워크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서비스보다는 안부확인의 만남에 초점을 두어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만남활동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활동에 필요한 체험과 교육을 직접 고민하고 찾아서 함께 받으며, 방문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 만남활동원의 복수방문과 만남노트 기록 등은 농촌지역에서 어떻

게 마을주민 주도에 의해 노인돌봄활동 전개해나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준다.

니시구 사회복지협회의 '노인지킴이활동'은 1997년 자원봉사센터 개설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2000년부터 추진된 공적인 개호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지속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사는 농촌노인의 안부확인을 위한 주 1회의 정기적인 우애방문활동과 두문불출하기 쉬운 노인들의 외출과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급식회 운영 등을 시범사업으로 연결시킨다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인클럽 주도형의 노인에 의한 노인돌봄과 같은 '실버프렌드' 등 노노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의 복지 향상과 함께 노인의 사회활동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의 운영주체가 노인클럽 회원인 노인들이기 때문에, 활동내용이 자원봉사 노인에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안부확인의 우애방문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서만 생활하기 쉬운 노인들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찰하고 생사를 확인하며 이들을 집 밖에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데리고 나오는 형태의 활동들이었다.

노인에 의한 상호 우애방문활동은 고령화된 우리나라 농촌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애방문활동은 안부확인, 말벗 등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무리가 가는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노인들의 공감대 조성과 마을주민들의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농촌의 새로운 노인돌봄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농촌지역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서 농촌형 노인돌봄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마을주민들간 오랜 유대관계망에 기초하여 마을주민 주도로 복지문제를 해결하며, 이웃주민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보편적

서비스와 복지기관의 전문적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돌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촌의 새로운 자립형의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 Bull S.N. (1993). *Aging in Rural America*, SAGE publications, Inc.
- Krout, J. A. (1994). *Providing Community-based Services to the Rural Elderly*. SAGE publications, Inc.
- 고마무라 고헤이. (2006). 일본의 복지정책. 김승희 옮김. 한울아카데미.
- 김옥희. (2008). 대도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9-115).
- 박덕병. (2003). 미국 노스다코다주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0(2), 153-166.
- 윤순덕 · 박공주 · 채혜선 · 강주희. (2007). 농촌지역 老老돌봄 활동사례 모음. 농촌진흥청.
- 윤순덕 · 박공주 · 채혜선 · 이서영. (2006). 老老돌봄 운영에 관한 韓 · 日사례 비교 분석. 농촌진흥청.
- 윤순덕 · 채혜선. (2008a). 농촌지역 사회적 老老돌봄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40, 31-54.
- 윤순덕 · 채혜선. (2008b). 농촌마을의 비공식적 노인돌봄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2), 297-308.
- 전혜정. (2007). 한국노인의 생산적 활동참여와 정신건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1), 167-190.
- 정경희 · 이윤경 · 이소정 · 유삼현. (2008). 초고령지역의 보건복지 모형설계를 위한 세부지침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 정재욱. (2006). 일본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복지행정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왕사.
- 중춘우일. (1998). *일본재가복지 서비스의 전략*. 정상양 옮김. 학문사.
- 한경혜. (2002). 미국의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지원프로그램.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2), 77-86.
- 한경혜 · 김주현. (2005).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1), 73-88.

- 한경혜 · 김주현 · 강혜원. (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농촌사회*, 15(2), 85-131.
- 현외성. (1998).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유풍출판사.
- 황경성 외. (2001).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 황경성 외. (2004).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 학지사.

논문투고일: 2009. 2. 28

1차수정일: 2009. 3. 15

2차수정일: 2009. 5. 25

게재확정일: 2009. 5. 29